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흡연 행태에 관한 연구

김은주¹ · 임지영²

¹경인여자대학 간호과 부교수, ²인하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A Correlational Study of Job Stress, Drinking and Smoking of Local Government Staffs

Kim, Eun-Joo¹ · Lim, Ji-Young²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 College;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among job stress, drinking, and smoking of local government staff.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05 government staffs working in a local government office.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 using questionnaires from March 2 to April 30, 2009.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Chi-square test, ANOVA, and Man-Whitney test. **Results:** Physical stress was the highest in job stress components.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96%) had drinking experiences more than once per month. 25.4% of respondents reported they drank more than 10 glasses each time. Smoking was habitual in 36.6% of the subjects and 28% of subjects had participation in a smoking cessation program. Respondents who reported high job stress had a longer history of smoking. **Conclusions:** Job stress was highly associated with drinking and smoking. Stress control programs and smoking and alcohol cessation/moderation programs could be beneficial for the health of government staffs.

Key Words: Job stress, Drinking, Smoking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스트레스란 어떤 요구적 상황이 개인의 대응 능력에 부담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종류의 경험(Park & Kim, 2004)으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오래 지속하게 되면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고 질병으로 악화되어 부적응 상태가 된다(Selye, 1983). 현대인의 일상생활 속에는 스트레스가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Brenner (1978)는 현대인들의 질병 중 약 50-70%가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생활영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조직과의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적 차원에서도 관심과 연구

의 대상이 되고 있다(Lee, 1998).

특히 직장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업무능력이나 흥미가 전혀 고려되지 않거나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수행에 자율성이 없을 때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aun & Hollander, 1988). 또한 이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직장인들은 음주와 흡연을 손쉽게 이용하고 있었으며(Choi, Kim, & Kim, 2002)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업무능력을 저하시키고 지각이나 금전적 손해 등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yu, 2002).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역시 직장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은 정년보장과 평이한 업무특성상 스트레스가 적은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개혁적이며 효율적인 산출중심의 정부조직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주요어 : 직무스트레스, 음주, 흡연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Eun-Joo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 College, 548-4 Gyesan-dong, Gyeongang-gu, Incheon 407-740, Korea
Tel: 82-32-540-0190 Fax: 82-32-555-2614 E-mail: kimeju@kic.ac.kr

투고일 : 2010년 6월 8일 심사완료일 : 2010년 6월 25일 게재확정일 : 2010년 6월 25일

스트레스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Cho, Lee, & Cho,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있어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왜냐하면 공공조직이란 본질적으로 기업조직과 다르다고 여김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한 조직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Park, 2007). 하지만 이제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단지 학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가적인 정부와 정부부문의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의 도입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화된 행정환경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처하려는 공공조직의 경쟁과 성과 중심적 대응 방식들은 조직구성원과 직무환경간의 부적합을 날로 심화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다(Park, 2007).

이에 본 조사에서는 지방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흡연 행태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 공무원의 스트레스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음주 및 흡연예방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방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음주, 흡연행태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음주, 흡연행태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흡연 행태와의 관계를 규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흡연행태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대상은 일개 구청 공무원이었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3월 월례회의 시간에 본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연구자가 직접 설명한 후 전체 직원 420명의 사내메일을 통해 승낙서와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발

송 후 2주 후까지 회신을 부탁하였다. 응답지는 인쇄하여 설문에 응답하고 구청 내 위생과 직원 우편함에 제출해 주도록 하였다. 우편함은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는 공간으로 직원들의 비밀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했다. 사내메일 발송과 설문지 회수는 구청 위생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회수된 응답지 225건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응답지 16건을 제외한 209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직무스트레스

House (1978)과 Davidson과 Cooper (1983) (Han, 1992에 인용됨)가 개발한 도구를 Han (1992)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그런 편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스트레스는 총 7문항, 정신적 스트레스는 총 8문항, 사회적 스트레스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 (1992)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79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21이었다.

2) 음주, 흡연 행태

음주정도와 흡연행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음주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최근 1년간 음주 경력 및 음주 후 행태에 관한 질문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흡연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총 12문항이며 주로 흡연자이거나 흡연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6문항은 예, 아니요의 이분형 척도였으며 나머지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4.0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정도 및 음주, 흡연 행태는 기술통계 기법을 활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지각한 건강상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흡연 행태는 t-test, ANOVA, Chi-square test를 활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음주행태는 Man-Whitney 비모수검정 기법을 활용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기입방식에 의존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편의가 개재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

며 일 지역의 일개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전체 지방공무원으로 일반화할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지각한 건강상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7.6세였으며 31-40세가 76명(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41-50세가 71명(34.0%)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103명(49.3%)이며 여성은 106명(50.7%)이었다. 직무는 사무직이 173명(82.8%)이었으며 기술직이 19명(9.1%)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23명(58.9%), 전문대학 졸업이 42명(20.1%)이며 대학원졸업 이상은 9명(4.3%)이었다. 대상자의 급수는 6급이 58명(27.8%)로 가장 많았으며 5급이 44명(21.1%), 7급이 41명(19.6%)이었다.

대상자가 지각한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6명(26.8%)이었으며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35명(64.6%),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는 8명(3.8%)이었다.

2.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정도는 Table 2와 같다. 전체 평균은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9)

Variable	Criteria	Frequency	Percent
Age (yr)	Mean (SD)	37.6	(9.12)
	<30	50	23.9
	31-40	76	36.4
	41-50	71	36.4
	>51	12	5.7
Gender	Male	103	49.3
	Female	106	50.7
Marital status	Not married	66	31.6
	Married	141	67.5
Job	Production	3	1.4
	General officer	173	82.8
	Research	0	0.0
	Technician	19	9.1
	Other	7	3.3
	Education	High school	33
Education	College	42	20.1
	University	123	58.9
	Graduate and over	9	4.3
	Position	Grade 9	32
Position	Grade 8	41	19.6
	Grade 7	58	27.8
	Grade 6	44	21.1
	Grade 5	5	2.4
	Perceived health status	I think I am healthy.	56
I don't think I am healthy even though I don't have any disease.		135	64.6
I think I might have some disease.		8	3.8
I know I have disease.		10	4.8
I don't care.		0	0

Table 2. Job Stress of Participants (N=209)

Subscales	Items	Mean	SD
Physical stress	I feel my body is heavy and it is difficult to wake up in the morning.	3.35	1.10
	I feel fatigue very easy.	3.51	1.02
	I have indigestion.	2.72	1.04
	I have a respiratory difficulty when I do a light exercise.	2.54	1.10
	I feel dizzy.	2.53	1.10
	I have muscle spasm in my face and body.	2.27	1.06
	I have much sweat in my hand.	2.05	1.10
	Subtotal	2.76	0.67
	Emotional stress	I feel headache.	2.63
I always feel depression because of worries.		2.33	1.07
I like to be alone.		2.24	1.07
I have a difficulty to sleep.		2.20	1.14
I have a palpitation.		2.19	0.99
I have a difficulty to concentrate on my job.		2.16	0.88
Sometimes I have a nightmare.		2.00	1.03
I am afraid of lay-off.		1.82	0.87
Subtotal		2.24	0.69
Behavioral stress	I feel upset a little thing.	2.63	1.08
	I eat very fast and much than ever before.	2.24	1.05
	I cry easily or do the harsh language behavior.	2.16	1.03
	I don't have appetite.	1.97	0.93
	Drinking or smoking are increased more than ever.	1.86	1.04
	Subtotal	2.24	0.69
Total		2.21	0.70

5점 만점에 2.21±0.70점이었으며 이 중 신체적 직무스트레스는 2.76±0.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는 2.24±0.69점, 행동적 스트레스는 2.24±0.69점이었다. 대상자의 신체적 스트레스에서는 '매우 쉽게 피로를 느낀다'는 항목이 3.51점(±1.02)으로 가장 높았으며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항목이 두 번째로 높았다(3.35±1.10점). 평균이 가장 낮은 항목은 '손에 땀이 많이 난다'이었다(2.05±1.10점). 대상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서는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머리가 무겁거나 두통을 느낀다'라는 항목으로 2.63±1.11점이었으며 두 번째는 '근심걱정으로 마음이 늘 우울하다'이었다(2.33±1.07점). 가장 낮은 점수는 '직장에서 해고될까 두렵다'이었다(1.82±0.87점). 대상자의 사회적 스트레스에서는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사소한 일에 짜증부터 난다'라는 항목으로 2.63±1.08점이었으며 두 번째는 '전에 없이 빠르게 많이 먹는다'이었다(2.24±1.05점). 가장 낮은 점수

는 '흡연 또는 음주량이 예전에 비해 증가했다'이었다(1.86±1.04점).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령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30세 이전의 연령에서 가장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40-50세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가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신체적 스트레스는 가장 차이가 컸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88, p=.024).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스트레스 역시 30세 이전 연령이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가장 낮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신체적 스트레스는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점수가 높았다(F=7.08, p=.008).

대상자가 지각한 건강상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건강하다고 지각한 대상자의 신체적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으며 무슨 병

Table 3. Job Stress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N=209)

Characteristics	Mean (SD)				
	Physical	Psychiatric	Social	Total	
Age (yr)	<30	2.93 (0.54)	2.31 (0.56)	2.32 (0.67)	2.53 (0.44)
	31-40	2.75 (0.59)	2.19 (0.67)	2.14 (0.66)	2.37 (0.56)
	41-50	2.78 (0.75)	2.31 (0.75)	2.47 (0.75)	2.47 (0.69)
	>51	2.07 (0.73)	1.70 (0.59)	1.70 (0.59)	1.89 (0.69)
	F (p)	2.88 (0.024)	0.866 (0.486)	1.97 (0.101)	2.01 (0.094)
Gender	Male	2.63 (0.72)	2.21 (0.77)	2.33 (0.77)	2.39 (0.69)
	Female	2.88 (0.59)	2.27 (0.61)	2.10 (0.61)	2.44 (0.50)
	F (p)	7.08 (0.008)	0.322 (0.571)	5.37 (0.021)	0.37 (0.543)
Marital status	Not married	2.85 (0.69)	2.38 (0.69)	2.29 (0.79)	2.53 (0.62)
	Married	2.73 (0.65)	2.18 (0.68)	2.18 (0.65)	2.38 (0.59)
	F (p)	1.41 (0.246)	2.54 (0.082)	1.33 (0.267)	2.28 (0.105)
Job	Production	2.95 (0.36)	2.75 (0.57)	2.20 (0.53)	2.78 (0.43)
	General officer	2.78 (0.66)	2.26 (0.69)	2.60 (0.69)	2.43 (0.59)
	Technician	2.64 (0.83)	2.11 (0.77)	2.22 (0.83)	2.33 (0.74)
	Other	2.67 (0.46)	2.10 (0.58)	2.24 (0.57)	2.27 (0.44)
	F (p)	0.42 (0.794)	0.69 (0.594)	0.44 (0.780)	0.55 (0.697)
Education	High school	2.78 (0.69)	2.09 (0.61)	1.98 (0.64)	2.30 (0.59)
	College	2.62 (0.77)	2.17 (0.76)	2.14 (0.73)	2.32 (0.67)
	University	2.83 (0.63)	2.30 (0.71)	2.31 (0.71)	2.49 (0.59)
	Graduate and over	2.44 (0.62)	2.23 (0.39)	2.00 (0.51)	2.25 (0.43)
	F (p)	1.29 (0.277)	0.81 (0.519)	1.95 (0.104)	1.25 (0.292)
Position	Grade 9	2.79 (0.65)	2.32 (0.54)	2.28 (0.64)	2.47 (0.54)
	Grade 8	2.79 (0.66)	2.17 (0.64)	2.24 (0.67)	2.41 (0.50)
	Grade 7	2.81 (0.57)	2.24 (0.67)	2.29 (0.70)	2.45 (0.58)
	Grade 6	2.72 (0.71)	2.34 (0.70)	2.29 (0.78)	2.46 (0.76)
	Grade 5	2.81 (0.67)	2.08 (0.78)	1.73 (0.64)	2.25 (0.61)
	F (p)	1.28 (0.268)	0.91 (0.490)	1.79 (0.102)	1.27 (0.273)
Perceived health status	I think I am healthy.	2.35 (0.63)	1.95 (0.72)	1.90 (0.77)	2.08 (0.64)
	I don't think I am healthy even though I don't have any disease.	2.90 (0.61)	2.33 (0.64)	2.32 (0.65)	2.53 (0.54)
	I think I might have some disease.	3.21 (0.58)	2.67 (0.89)	2.65 (0.62)	2.86 (0.63)
	I know I have a disease.	2.81 (0.72)	2.06 (0.67)	2.06 (0.67)	2.38 (0.61)
	F (p)	8.34 (0.000)	3.91 (0.004)	4.44 (.002)	6.96 (0.000)

이 있는 것 같다고 지각한 대상자의 신체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34$,

$p=.000$). 또한 지각한 건강상태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91$, $p=.004$), 지각한

Table 4.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 of Participants

Items		Male		Female		χ^2	p
		Frequency	%	Frequency	%		
Drinking experience	Yes	99	98.0	98	94.2	0.331	.565
	No	2	2.0	6	5.8		
Drinking frequency (In drinkers, within 1 yr)	None	3	3.0	5	4.8	60.13	.000
	Less than 1 time/month	4	4.0	22	21.2		
	1 time/month	10	9.9	32	30.8		
	2-4 times/month	34	33.6	42	40.4		
	2-3 times/week	44	43.6	3	2.9		
	Over 4 times/week	6	5.9	0	0.0		
Drinking amount	1-2 cups	4	4.1	28	28.3	57.93	.000
	3-4 cups	8	8.2	39	39.3		
	5-6 cups	20	20.4	16	16.2		
	7-9 cups	18	18.3	9	9.1		
	10 cups and over	48	49.0	7	7.1		
Frequency of heavy drinking experience	None	9	8.9	26	25.0	68.93	.000
	Less than 1 time/month	13	12.9	48	46.2		
	1 time/month	26	25.7	24	23.1		
	1 time/week	44	43.6	6	5.7		
	Almost everyday	9	8.9	0	0.0		
Amount of experience not to control a drinking	None	42	41.6	83	79.8	41.41	.000
	Less than 1 time/month	20	19.8	14	13.5		
	1 time/month	24	23.7	5	4.8		
	1 time/week	11	10.9	2	1.9		
	Almost everyday	4	4.0	0	0.0		
Amount of experience to get some trouble in everyday life	None	39	38.6	67	64.5	25.14	.000
	Less than 1 time/month	28	27.7	30	28.8		
	1 time/month	21	20.8	7	6.7		
	1 time/week	12	11.9	0	0.0		
	Almost everyday	1	1.0	0	0.0		
Amount of experience not to remember something after awakening from drinking	None	41	40.6	84	80.8	45.07	.000
	Less than 1 time/month	30	29.7	12	11.6		
	1 time/month	20	19.8	7	6.7		
	1 time/week	10	9.9	0	0.0		
	Almost everyday	0	0.0	1	0.9		
Amount of experience to regret to drink	None	23	22.8	56	53.8	28.77	.000
	Less than 1 time/month	41	40.6	36	34.7		
	1 time/month	20	19.8	10	9.8		
	1 time/week	13	12.8	0	0.0		
	Almost everyday	4	4.0	2	1.9		
Smoking experience	Yes	70	69.3	2	1.9	79.09	.000
	No	31	30.7	102	98.1		
Smoking status	Smoker	37	36.6	0	0.0	2.13	.144
	Ex-smoker	33	32.7	2	1.9		
	None smoker	31	30.7	102	98.1		
Average smoking amount per day (Only smokers)	Mean (SD)		4.28 (± 6.97) cigarettes		44.21	.000	
Quitting smoking (over 24 hr)	Yes	24	64.9	0	0.0	42.92	.000
	No	13	35.1	0	0.0		
Plan for quitting smoking (Within 1 month)	Yes	13	35.1	0	0.0	42.89	.000
	No	24	64.9	0	0.0		
Smoking period	Mean		7.27 (± 8.82) yr		65.19	.000	
Indirect smoking	Yes	19	18.8	12	11.5	12.98	.000
	No	82	81.2	92	88.5		
Smoking quitting education	Yes	26	25.7	2	1.9	3.07	.080
	No	75	74.3	102	98.1		

Table 5.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 according to Job Stress

	Lower group (n=119)		High group (n=90)		t or z	p
	Mean	SD	Mean	SD		
Drinking amount					-0.97	0.331
Amount of experience not to control a drinking?					-3.33	0.001
Amount of experience to get some trouble in everyday life?					-2.32	0.020
Amount of experience not to remember something after awoken from drinking?					-2.98	0.003
Amount of experience to regret to drink?					-1.74	0.081
Time to smoke	5.02	8.75	8.00	10.05	5.12	0.025
Average smoking amount	1.46	4.53	2.91	6.12	3.79	0.053
Smoking period	2.59	6.14	4.79	8.15	4.80	0.030
Smoking amount (past)	2.43	6.13	4.64	8.15	5.22	0.023

건강상태에 따른 사회적 스트레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44$, $p=.002$).

4. 대상자의 음주행태

음주 여부에 관한 문항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남녀 총 197명(96.1%)이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Table 4). 최근 1년 동안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에 대한 응답에 대해 일주일에 2-3회라고 응답한 남성은 44명(43.6%)이었으며 한 달에 2-4번은 34명(33.6%)이었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한 달에 2-4회 마신다고 한 경우는 42명(40.4%), 한 달에 1회 마신다는 32명(30.8%)이었으며 이런 성별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60.3$, $p=.000$). 음주량은 남성인 경우, 한 자리에서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48명(49.0%)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7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를 문제 음주로 정의하는 데 이런 문제 음주행태에 해당되는 남성 공무원은 66명(67.3%)이었다. 이에 비해 여성인 경우, 7잔 이상 마시는 경우는 16명(16.2%)이었으며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57.93$, $p=.000$). 문제음주를 하는 빈도에서 남성은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4명(43.6%),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9명(8.9%)이었다. 여성은 '1달에 1회 문제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23.1%)으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일에 1회라고 응답한 경우는 6명(5.7%)이었다. 이런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68.93$, $p=.000$). 음주를 자제할 수 없었던 적은 1달에 한 번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인 경우 24명(23.7%)이었으며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명(4.0%)이었다. '음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남성인 경우 한 달에 1번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1명(20.8%)이었으며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2명(11.9%)이었다(Table 4).

5.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음주 및 흡연 행태

직무스트레스가 평균보다 높은 군과 낮은 군의 두 집단 간 음주행태의 차이 중에서 음주량은 차이가 있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음주행태에서 '중도에 그만 둘 수 없다'는 항목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었다', 그리고 '기억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무스트레스가 평균보다 높은 군과 낮은 군의 두 집단 간 흡연행태의 차이를 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군의 경우 높은 군에 비해 흡연시기가 짧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12$, $p=.025$). 또한 평균 흡연량 역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많았으며 흡연기간 및 과거 흡연량 역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지방구청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음주 및 흡연행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6세였으며 30세 이전부터 50세까지 연령분포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성별은 남성이 49.3%, 여성이 50.7%로 여성이 다소 많았으며 기혼자가 67.5%로 많았다. 담당하는 직무는 82.8%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교육정도는 대졸이 58.9%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지각한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26.8%밖에 없었으며 64.6%는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질병이 있는 것 같거나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고 지각하는 대상자는 8.6%에 해당되었다. 20세 이상의 한국 성인의 건강평가 결과에 따르면 49.7%가 좋다고 평가하였고 나쁘다고 평가한 경우는 14.9%였던 결과(Statistic Korea, 2008)에 비하면 매우 부정적으로 건강상태를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취

업자이며 임금 봉급생활자의 경우 58.0%가 건강상태가 좋다 (Statistic Korea, 2008)라고 평가한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정도만 건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중 정도였다. 특히 신체적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스트레스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런 결과는 Park (2008)의 보건소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프리젠텐즘에 관한 연구에서 역시 보건소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다른 직종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Cho (2006)의 일반사무직 행정공무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스트레스 수준이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64.9%이며 고위험스트레스군은 24.8%로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비하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적 직무스트레스 중에서 '매우 쉽게 피로를 느낀다'는 항목이 3.51점(±1.02)으로 가장 높았으며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는 항목이 3.35점(±1.10)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Cho (2006)의 연구에서 일반 사무직 행정공무원의 주관적 피로수준은 50% 이상에서 평상시보다 피로수준이 높다고 호소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역시 매우 쉽게 피로를 느낀다고 응답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신체적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은 심각한 건강상태에서 자신들이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이 아니라고 응답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지각하는 건강정도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신적 스트레스에서는 '머리가 무겁거나 두통을 느낀다'는 항목이 2.63점(±1.11)이었다. 그리고 '근심걱정으로 마음이 늘 우울하다'는 항목 역시 2.33점(±1.07)으로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피로감이나 두통 등을 유발하여 결근이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방공무원의 음주행태는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대상자는 197명으로 95%가 경험이 있었다. 또한 최근 1년간 한 달에 2-4회를 마시는 대상자는 35.4%, 일주일에 2-3회 마시는 경우는 27.5%로 많았다. 한 달에 1번 이상 정도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는 20.1%로 한 달에 1번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는 전체 96%에 해당되었다. 또한 1회 음주량은 10잔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가 25.4%로 가장 많았다. 특히 남성공무원의 음주율이 매우 높았다. 한자리에서 7잔 이상 마시는 문제음주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1.1%로 가장 많았으며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성은 4.3%이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일주일에 1번이라고 응답한 남성은 11명으로 전체 남성의 10%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지방공무원의 음주율이 매우 높았으며 문제음주 유형의 빈도 역시 높았다. 전체 20세 이상 인구 중 월 2-3회라고 응답한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1회라고 응답한 경우는 11.1%,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9%에 불과한 결과(Statistic Korea, 2008)에 비교하면 매우 높았다. 또한 문제음주율 역시 통계청 자료는 6.0%였으나 본 연구 대상자는 8.9%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 성인보다 지방공무원의 음주율은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남성인 경우 문제 음주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의 음주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런 음주에 대해 수용적인 문화로 인해 직장인들의 음주문화는 과음, 폭음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직장인의 61.5% 이상이 음주로 인해 직장에서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Ryu, 2002)고 하였다. 즉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직장내 수평적 관계를 맺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개로 활용될 수 있는 음주는 위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매우 부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절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음주의 정확한 기능 및 문제점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절주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과 실기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직장인들이 이해하고 허용하는 음주의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허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모두 인식하여 음주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하겠다.

대상자의 흡연행태를 확인한 결과, 36.6%의 남성이 현재 흡연중이며 과거에 흡연자였던 남성은 32.7%였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50.8%임을 고려할 때(Statistic Korea, 2008),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205명 대상자 중에 금연 교육을 받은 경우가 불과 28명인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금연 프로그램의 홍보전략에 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보건소와 근접한 기관인 구청 직원이 금연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매체를 다양하게 하여 공무원의 금연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연령이 적을수록 신체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는 30세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41-50세가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공무원으로 채용된지 오래되지 않은 신규인력일수록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탐색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0세 이상의 관리자나 중간관리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 역시 관찰되어야 할 내용이다. 다변화되고 전문화되는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공공기관의 관리자 역시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능력과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정신적·사회적 스트레스가 업무의 효율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이 지각한 건강상태는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스트레스와 건강상태에 따른 신체적 스트레스는 매우 차이가 컸다. 즉 개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자신이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고 지각하는 집단과는 신체적 스트레스의 차이가 컸다. 또한 질병이 있는 것을 지각하고 있는 집단보다도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한 불확실한 집단에서 스트레스가 큰 것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건강상태 인식 및 정기검진을 통한 확진 및 지속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업무의 스트레스로 전환되며 업무능력을 저하시키며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음주행태를 확인한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음주량이 많았으며 음주를 자제할 수 없었거나 일상생활을 지장 받았던 적이 많았고 술을 깬 후 기억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모두 다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음주행태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빈도 및 문제음주 빈도 역시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절주 및 금주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하겠다. 또한 문제음주자가 남자 공무원 중 67.3%라고 하면 이는 매우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제음주의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차원이나 스트레스 해결 방법으로 묵인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서구의 음주행위는 음주 그 자체가 개인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개인주의적 음주 성향이 큰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매개체로서 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Lee, 1998). 한국인의 46%가 음주를 대인관계에 유익하다고 느끼고 있다(Ryu, 2002). 즉 직장 내 대인관계를 위해 더욱 효율적인 방안모색이 절실할 것이다. 또한 음주로 인한 스트레스 해결은 매우 순간적이며 가장 손쉬운 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및 기타 질병에 노출되기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Straus (1983)와 Skog (1991)은 음주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장 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음주행태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더불

어 왜곡된 음주 문화들로 서로서로 음주를 권하고 음주를 거부하지 못할 때 소외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직장 내 잘못된 관념들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흡연행태의 차이를 본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군의 경우 높은 군에 비해 흡연시기가 짧았으며 평균 흡연량이 적었다. 흡연기간과 과거 흡연량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높았다. Green과 Johnson (1990)의 연구에서 화학공장 남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성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높은 흡연량을 보인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이런 차이들은 남녀간의 차이가 명백함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로 지방공무원은 중정도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평균보다 높은 음주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지각하고 있는 건강상태가 부정적이었으며 나이가 젊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더 컸으며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흡연 및 음주 행태의 부정적인 점수들이 모두 높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방구청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음주 및 흡연행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 효율적인 간호중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지방구청 공무원의 80%가 건강한 편이 아니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중 정도였으며, 음주행태는 1달에 1번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는 96% 정도였으며 문제음주는 26% 이상이었다. 또한 문제음주를 1주일에 1회 이상 마시는 남성 공무원은 25% 이상이었다. 지방구청 공무원의 36.6%의 남성이 현재 흡연 중이었으며, 이들 중 금연 교육을 받은 경우는 10% 정도였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음주량이 많았으며 음주 후 부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있었으며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군은 흡연시기가 짧았고 평균 흡연량이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건강행태에 대한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폭넓은 조사를 통해 일반화가 가능한 광범위한 연구들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공무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음주량 과다와 부정적인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절주 및 금연 프로그램과 함께 직장 및 가정 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대처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중재가 절실하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상담을 시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Braun, S., & Hollander, R. B. (1988). Work and depression among women i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omen & Health, 14*(2), 3-23.
- Brenner, M. H. (1978). *The Stress Price of Prosperity*. In Science News, March, 18.
- Cho, K. H. (2006).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psychosocial distress and fatigue symptoms among clerical public officers: and their related moderating fac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s, Chungnam University, Daejeon.
- Cho, K. H., Lee, D. B., & Cho, Y. C. (2007). Psychosocial distres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clerical public officers. *Th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9*, 26-37.
- Choi, S. H., Kim, M., & Kim, G. K. (2002). Smoking and related factors among white collar workers in Seou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8*(2), 27-44.
- Davidson, M., & Cooper, C. L. (1983). *Stress and the Women Manager*. New York, NY: Martin Robertson & Company.
- Green K. L., & Johnson J. V. (1990). The effects of psychosocial work organization on patterns of cigarette smoking among male chemical plant employe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0*, 1368-1371.
- Han, K. H. (1992). *An empirical study on the job str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s, Kunkuk University, Seoul.
- House, R. J., & Wells, J. A. (1978). Occupatio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health. In A. McLean, Black, & M. Colligan (Eds.), *Reducing occupational stress proceeding of a cofereences* (pp. 345-357), New York.
- Lee, M. H. (1998). Alcoholic disorder and mental health of the clients participated DUI program. *Journal of Alcohol Science, 7*(2), 70-80.
- Park, J. S. (2007). *The impacts of women public officials' job stress on job attitud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s, Dankuk University, Seoul.
- Park, J. S., & Kim, J. H. (2004).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eoul: Korea Medical.
- Park, S. M. (2008). *The study on Job stress and Presenteeism of public officials in community public health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Ryu, B. H. (2002). *Story of alcohol*. Seoul: Yerim Media.
- Selye, H. (1983). The Stress Concept, Past, Present, Future. In C. L. Cooper (Eds.), *Stress Research: Issues for the Eighties*. (pp. 1-20).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Skog, O. (1991). Implications of the distribution theory for drinking and alcoholism, In D.J.Pitterman & H.R. White (Eds.), *Society, culture, and drinking patterns reexamined* (pp. 576-597). New Brunswick: Rutgrs Center of Alcohol Studies.
- Straus, R. (1983). Types of alcohol dependence. In B. Kissin & B. Begleiter (Eds.), *The Biology of Alcoholism* (pp. 1-16). New York, NY: Pleum.
- Statistics Korea. (2008). *Korea statistics data*.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nso_main/nsoMainAction.do?method=main&cat-grp=nso2009